

- 과목명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TV 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미디어 콘텐츠에서 발견한(혹은 본인이 주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포착하고 이를 기술한 다음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오류인지 나름대로의 분석을 가하여 써 보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국어권
2. 영어권
3. 그 외

III. 결론

I. 서론

현재 평일에는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강사 및 영어 학습을 늘리려는 외국인 (중국인)을 자주 만나고 있고 주말에는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대림, 남구로역 근처라서 많은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수영장에 상담 및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많은 중국인들을 관찰하면서 생긴 오류들에 대해 작성하려 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거다~ 라는 선입견이 있고 또한 상대적 지위, 고객 (외국인) 과 직원 (나) 라는 위치 때문에 일반화 할 순 없지만 관찰하고 느낀 것들을 기술하는 형태라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I. 본론

1. 중국어권 학습자

: 중국어권 학생 혹은 40~60대 정도로 보이는 어른들을 상대하다보면 화가 많이 나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항상 화가 나있어서 수영장에서 근무할 때 (남구로동) 무서운 경우가 많았다.

A씨 (60대 컴플레인 아저씨)

A씨는 수영장을 2~3년정도 다닌 나이가 있는 어른인데 내가 A씨를 알게 된건 4개월정도 된 거 같다. 그날 A씨가 수영장을 재등록하기 위해서 재등록 할인이 있는지 물었고 3개월은 없고 6개월은 등록이 있다는 과정중에 대화가 시작했다.

나 : 3개월은 할인이 없고 6개월은 10% 할인이 있습니다

A씨 : 3개월 할인 왜 없다? 해줘라. 내 3년 이따.

나 : 죄송합니다. 3개월은 원래 할인이 없어서 6개월 등록하시면 10%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A씨 : 원래 어딴니? 내 15%했다. 카도 말고 개좌 이째.

정확하게 그날의 대화가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도 아저씨와 대화를 하면 보통 저런 식의 실수를 저지르시고 한다.

A씨가 말한 '3개월 할인 왜 없다? 해줘라. 내 3년 이따.'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문법적인 오류로써 3개월은 같은 조사를 안 쓴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마찬가지만 주어에는 주격조사를 쓰는 우리말과 달리 주격조사를 안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할인에도 마찬가지로 할인'이'를 붙여주면 좋을거 같지만 조사를 안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사소통에서 조금 힘든적이 있다. '내 3년 이따' 에서도 '내가 3년을 다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거 같은데 역시 '내' 뒤에 가라는 조사를 빼고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물론 내가 훨씬 어려워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존댓말을 안쓰는 문법적 오류를 볼 수 있다. 이것은 A씨가 존댓말을 애초에 안 배웠는지 혹은 존댓말을 배웠지만 상대가 자기보다 어려서 인지 확인이 안되서 오류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하지만 어쨌든 저 날이 A씨와 처음 대화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존댓말을 안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원래 어딴니? 내 15%했다. 카도 말고 개좌 이째' 라는 문장에서도 여전히 문법오류가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발음상의 오류를 보려고 한다. 저 날은 A씨가 나에게 할인을 요구하는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라 화가나서 말이 급해지고 빨라서 발음과 속도에서 화가 났구나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항상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가끔은 먹을 것을 주면서도 화가 난 목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첫 날에 화가 난게 아니라 그냥 원래 말투가 화가 나있고 빠르게 말을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중국어가 4성조를 쓰기 때문에 억양에서 차이가 나고 중국에는 없는 발음들을 하다 보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세를 더 심하게 줘서 말하느라 목소리 톤이나 악센트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그런 것이 어딴니? 지난 번에는 15% 할인을 받았다. 카드 말고 계좌이체로 하면 할인이 있다' 라는 것을 A씨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여기서 '깨좌 이찌' 라는 단어를 보면 '예와 치웃'의 발음이 어려워져 저런 식으로 강세를 심하게 줘서 발음하기 어려운 어휘들을 발음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류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영어권 학습자

: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분 이시다. 어느정도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

B씨 (20대 미국인 여성분, 한국어를 잘하고 좋아함)

B씨는 완전 미국인으로써 한국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중이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가끔 무례한 경우가 있다.

B씨 : 안녕하세요. 민수. 민수 나 커피 좀 갖다주세요.

나 : 커피는 셀프입니다. B씨가 만들어 드세요.

B씨 : 너 그러면 곤란해져요. 민수씨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해줘셔야합니다.

나 : 싫어요 히히. B씨가 커피 만들어서 드세요.

B씨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한국말로도 자주 대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가 본 바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존댓말을 인지하고 있고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등 존댓말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것을 봤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은 여전히 '나는, 저는' 이라는 주격 조사를 안 쓰는 장면을 많이 보고는 한다. 이것도 중국어권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아마 영어에도 조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갖다주세요.'에서처럼 조금 어색한 존댓말 문장들을 사용하고는 한다. 아마 존댓말의 개념을 알기전에 '갖다줘'를 학습하고 이후에 '주세요'라는 존댓말을 인식하게 됐지만 아마 언어의 화석화가 진행되서 습관적으로 '갖다주세요.' 혹은 '해줘셔야합니다.' 같은 어색한 표현을 쓰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낸지 꽤 되었기 때문에 능/수동 혹은 관용어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직은 상황에 맞게 적절한 관용어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더 습관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고쳐줘야 하는데 이미 한국어를 잘하고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혹시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주변에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B씨의 잘못된 문법, 상황에 맞는 관용어들을 고쳐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언어의 화석화가 진행되기 전에 문법적으로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고쳐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고쳐주는 방법을 통해 어느정도 한국어를 사용 가능한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그 외 나라

: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필리핀과 벨기에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한국어를 모두 잘 사용해서 거의 오류를 목격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국어를 나보다 정확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필리핀 분은 전혀 필리핀 분인줄 모르고 한국인인줄 알았고 벨기에 분은 아무래도 생김새 때문에 외국인인걸 알았지만 눈을 감고 대화하면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한국 말을 잘 구사한다.

하지만 발음에 있어서 ‘니은’ 발음을 어려워하는거 같다. 두 분 모두 여자 외국인인데 “진짜?” 라는 말을 “징짜?” 라고 발음한다. 이게 여성이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니은’ 발음 자체가 어려워서 애매한 느낌이 있으나 한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있는 특징으로 는 발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 말하는데 있어서 문장을 만들고 상황에 맞게 쓰는데 어색함이 없는데 ‘진짜’ 라는 부분에서만 어색함을 느꼈다.

III. 결론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있어서 나라마다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어에 오래 산 경력 혹은 각 나라에서 미리 한국어를 공부한 시기에 있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발음에서 어색함 혹은 문법적으로 어색함 그리고 문장을 만들고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색함이 있다.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발음에서 해당 국가에 없는 자음 혹은 모음을 발음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류가 빈번하고 특히 받침을 발음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생각) 하지만 발음에 있어서 나라별로 하기 힘든 발음들을 발음상 오류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주변 외국인들을 많이 관찰하고 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오류를 많이 만들었는지 물어보면서 나중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을 때 많이 참고해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출처 : 주변 친구들 및 지인